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 가능	배포 일시	2023. 3. 12.(일) 오후
담당 부서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	책임자	과 장 권영규 (044-200-5250)
		담당자	사무관 황인성 (044-200-5277)

코로나19 딛고 3년 만에 크루즈선 입항 재개

- 3. 13.(월) 속초를 시작으로 올해 160여 회 입항 전망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3월 13일(월)에 여행객 500여 명과 승무원 300여 명이 탑승한 크루즈선 M/S Amadea호*가 속초항에 입항한다고 밝혔다. 여행객이 탑승한 크루즈선이 국내에 입항하는 것은 '20년 2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입항 제한 조치 이후 3년 만이다.

* 총 톤수 29,008톤, Phoenix Reisen GmBH(독일) 운영, 800여명 탑승 가능(승무원포함)

이날 M/S Amadea호의 속초 입항을 시작으로 '23년 160*여 회의 크루즈선 국내 입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작년 10월 크루즈선 입항 재개 발표 이후 크루즈선이 원활히 입항할 수 있도록 크루즈선 기항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항만공사 등과 함께 크루즈 터미널 시설과 주요 관광지 등을 점검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운영에 공백이 생긴 세관, 출입국 사무소, 검역 사무소 등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도 적극 추진하였다.

* '23년 2월 말 신청 기준으로 부산 90회, 인천 12회, 제주 50회, 여수 3회, 속초 6회 등 총 161회 입항 신청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크루즈산업의 장기적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해 올해 '제2차 크루즈산업육성기본계획('23~'27)'을 수립하였다. 계획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7년 외국인 관광객 연 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환황해권, 환동해권, Fly & Cruise* 등 다양한 노선의 크루즈선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테마의 크루즈 상품 개발 지원, 대국민 크루즈 체험단 운영과 온·온프라인

홍보 등을 통해 국내 크루즈 저변 역시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크루즈선 출항지까지 항공으로 이동 후 출항지역 관광 후 크루즈선에 승선하는 상품

한편, 해양수산부와 강원도, 속초시는 크로나19 이후 3년 만의 크루즈선 입항 재개를 기념하여 속초항 국제 크루즈 터미널에서 M/S Amadea호 입항 환영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 이병선 속초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직접 첫 하선 관광객에게 꽃목걸이를 증정하고, M/S Amadea호 선장에게는 기념패도 증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송상근 차관은 이 자리에서 “3년 만의 크루즈선 입항 재개와 크루즈 관광객 방한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수출과 내수를 아우르는 유망 해양산업인 크루즈산업이 여행수지 개선을 통해 국민 경제 전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보다 많은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